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제36회 에너지절약축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에너지절약축진대회는 경과보고와 우수사례발표에 이어 에너지 절약, 효율향상,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유공자 101명(단체 포함)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24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77점이 수여됐다.

산업계에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신기술 개발 등의 발군에 성과를 이룬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1곳이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에너지 최적화 관리시스템 도입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통한 전력비용 절감 등 에너지설비투자를 통해 최근 5년간 1,009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한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이 받았다.

이날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동절기에도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장관은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민간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55년 전후에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건설·운영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지난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에너지절약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

2055년 전후로 영구처분

시설 건설·운영해야

한전, 3분기 누적순익
2조3,218억 달성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 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며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의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결산 잠정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은 342.3% 증가한 4조9,179억 원, 순이익은 615.2% 증가한 2조3,218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손익실적이 개선된 주된 이유는 전기판매수익 증가와 연료비 감소 외에도, 해외사업수익 확대 및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등 강력한 자구노력으로 인한 결과다.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한 39조1,718억 원이며, 연료비는 14.3% 감소한 15조5,172억 원, 구입전력비는 8.9% 증가한 8조8,95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UAE원전사업 매출액 증가, 멕시코 노르페Ⅱ 발전사업의 본격 상업운전 개시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대폭 증가한 2조3,103억 원(37% 증가)을 실현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러한 해외사업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국내 경영실적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비용절감, 투자주식 매각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8,046억 원(한전 별도 기준)의 수익개선 효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체 순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부채비율 역시 전년 말 대비 1.1%p 하락한 201.2%를 기록, 최근 3년 평균 25.4% 증가했던 부채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수원, 세계 최고 품질
확보에 최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 석)은 지난달 20일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고리원자력본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원전 협력사 품질인 260여 명이 자리했으며, 품질이 원전의 근본 경쟁력임을 되새기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 품질책임자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 협력사 품질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품질검사 실무와 협력사 등록업무는 물론, 국내외 품질 위변조 사례를 통한 위변조 예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한수원 박병근 품질보증실장은 “품질인들의 다짐과 더불어 원전 품질을 혁신해 원전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은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울진 8개 대안사업’에 최종 합의했다. 한수원 조석 사장과 울진군 임광원 군수는 지난달 21일 울진군청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강석호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울진군의 사업계획에 따라 대안사업을 지원하며 울진군은 신한울 1~4호기 건설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종합개발 계획 등 그동안 확정짓지 못한 지역종합사업들이다.

한편 한수원은 신규원전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북 영덕군의 실질적인 지역 사업 발굴을 위해 경북도, 영덕군,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포럼을 지난달 11일 결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24번째 원전인 신월성원전 2호기(100만kW급)에 최초로 원자력연료가 장전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가 지난달 14일 운영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연료장전 작업에 착수, 19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력안전 검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한수원, 울진 8개 사업 최종합의 이끌어내

신월성 2호기, 최초 연료장전 완료

개선형 한국표준원전(OPR1000)인 신월성 2호기는 발전소 건물배치 최적화, 원자로 안전성 향상, 인간공학기술이 적용된 주제어실 등 최신 기술과 선형 원전의 운영경험을 반영,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발전소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전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수소제거설비와 지진발생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자동정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설비를 적용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로 발전소 출력을 상승하면서 시운전시험을 통해 종합적인 운전 가능성을 최종 검증하고 내년 7월경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

동반성장 우수기관 선정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지난달 1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된 ‘2014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에서 동반성장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이경로 동서발전 상생조달처장이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는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와 모범사례 확산,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59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동반성장 협의기구다.

동서발전은 동반성장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제품의 발전소 시범 설치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시행(323건) 및 연구개발비 지원(927억 원), 상설전시관 및 동반성장의 날 운영, 국내외 전시회 개최(33회)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은 지난 달 18일 한국표준협회(회장 백수현) 주최로 개최된 ‘2014 대한민국 좋은기업’ 시상식에서 공기업 최초로 ‘대한민국 좋은기업 대상’과 ‘최고경영자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서부발전이 대한민국 좋은기업 대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장정지 최소 유지,

가동률 최고 유지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한 점,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을 실천하고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한 조인국 사장은 지난해 9월 서부발전 사장으로 부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정부3.0 정책 이행,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규제 of 전면적 개혁으로 업무효율 및 생산성 10% 향상에 주력했다. 특히 공기업 정상화 이슈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오는 2023년까지 발전산업 강소기업 30개를 발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는 야심찬 동반성장 플랜을 발표했다. 남동발전은



서부발전, 좋은기업 대상
최고경영자상 동시 석권

남동발전, 2023년까지
강소기업 30개 발굴

전력거래소

유상희 이사장 취임



지난달 1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동반성장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오는 2023년 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발전산업계 강소기업(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 30개를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OSEP World Class-30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남동발전 허엽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근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제7대 이사장에 유상희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유상희 신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017년 11월까지 3년이다.

신임 유상희 이사장은 연세대학교와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환경 및 전력경제분야 전문가로 산업연구원 및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는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실물경제 및 조직운영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력분야에서는 10여 년간 수요예측위원회 및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력수급과 관련한 민간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유상희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몇년간 불안한 전력수급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수급도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안정적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최근에 전력산업이 수요 측으로 급격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에 맞춰 전력거래소가 에너지신산업 선도 및 전력시장 선진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주문했다.

한전기술,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상량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은 김천혁신도시의 신사옥 상량식 행사를 지난달 20일 김천 신사옥 건설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을 비롯해 허동찬 김천 부시장, 공사관계자 및 협력회사 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신사옥이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원했다.

내년 상반기 경북 김천혁신도시 입주가 예정된 한전기술의 신사옥은 대지면적 12만1,934㎡, 연면적 14만5,818㎡, 건축면적 1만7,679㎡로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건설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 1등급,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한 에너지 절약형 사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은 “김천 신사옥에서 한전기술은 더 큰 도전과 열정을 통해 기술의 융화라는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고 김천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혁신과 창조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사장 최외근)가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경영성공을 창출해 공기업 최초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6년 연속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은 지난달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고 한전KPS의 품질경쟁력 수준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하며 선정서를 수여했다.

특히 국내 유수의 민간기업들과 함께 공기업이 16년 동안이나 우수기업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우리나라 품질 역사상 보기 드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KPS는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음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한전KPS, 16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전기학회 차기회장에
정현교 서울대 교수 선출



전기학회 2015년도 차기회장으로 정현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대한전기학회(회장 김호용)는 지난달 1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2차 평의원회에서 2015년도 차기회장 및 부회장 3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정현교 교수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강원대 전기공학과 교수, 기초전력연구원장을 역임했고, 1994년부터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차기년도 부회장으로 이흥재 광운대 교수, 김정훈 홍익대 교수, 신흥교 경상대 교수가 선임됐다. 감사는 장태수 비츠로시스 회장, 조금배 조선대 교수가 맡는다.

LS전선, 80kV 직류 초전도
케이블 실증 돌입

LS전선(대표 구자은)은 지난달 19일 세계 최초로 직류 초전도 케이블의 실증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10월 말 제주 초전도센터에 직류 80kV급 초전도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6개월간의 실제 통 운용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과 독일 업체들보다 늦게 초전도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후발주자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기술개발 10여 년 만에 업계 선두로 올라서는 분기점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LS전선 구자은 사장은 “초전도 케이블은 더 이상 ‘꿈의 케이블’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10여 개 국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LS전선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S전선은 2001년 초전도 케이블 개발을 시작, 2004년 덴마크,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교류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세계 최초로 직류 제품을 개발, 교류와 직류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회사가 됐다.



포스코에너지, 500kW급
반작용 스팀터빈 개발 나서

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가 세계 최초로 100KW 디스크타입 반작용 스팀터빈을 개발한지 2개월 만에 제품 판매를 연계한 500kW 스팀터빈 연구개발에 돌입한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천일에너지 본사에서 이명철 포스코에너지 기술전략센터장, 박상원 천일에너지 사장, 김정훈 HK터빈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0kW급 디스크타입 반작용 스팀터빈 실증 및 발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00kW급 반작용 스팀터빈을 공동 개발한 포스코에너지와 HK터빈은 500kW급 제품의 개발과 실증, 전력 계통 연계 등을 담당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천일에너지는 실증 장소 및 실증에 필요한 스팀을 지원하게 된다.



LS산전이 올해도 톰슨로이터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됐다. 100대 혁신기업이 처음 발표된 2011년 이후 LG전자, 삼성전자와 함께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LS산전은 최근 글로벌 컨설팅 그룹이자 통신사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4년 연속 선정, 지난달 26일 안양 소재 LS타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LS산전 구자균 부회장은 톰슨로이터 GGO ANA 토니 키니어(Tony Kinnear) 사장과 김진우 지사장을 만나 환담을 갖고, 100대 혁신기업 트로피를 수상했다.

구 부회장은 환담에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혁신 지표로 자리잡은 톰슨로이터 100대 혁신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영광”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위해 IP 역량과 기업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S산전은 R&D 혁신을 지속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삼고 매년 매출의 6%이상을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특히 IP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자 혁신의 지표로서, 전 사업 부문에 걸쳐 IP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S산전,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4년 연속 개근'